

코로나19 시기의 제조업 경영실적과 고용에 관한 연구

최태월*, 임종화**

산업진흥원*, 청운대학교 중국지역학과**

A Stud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Employment of Manufacturing Business in the Period of COVID-19

Tae-Wol Choi*, Jong Wha Lim**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과 고용 전망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대상 2020년 3분기, 4분기 경기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대기업 83개 업체, 중소기업 435개 업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별 경영 실적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경기 전망 분석에서 대기업은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고용 창출에서는 66.3%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부분에서 31.3%가 거의 변화가 없다와 30.3%는 증가할 것이라는 경영실적 전망을 보였으나 고용 창출에는 58.9%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의 경영실적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팬데믹 현상이 제조업 고용과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실적, 고용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performance and employment prospects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the analysis data are based on the Q3 and Q4 2020 economic survey of manufacturing industry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Portal. It used 83 large companies and 435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s analysis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little change in business performance by company size on creation of jobs. I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outlook for 2021, sales of large companies were analyzed to increase, but there was little change in creation of jobs at 66.3%. In terms of sale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expected to see little change at 31.3% and increase at 30.3%.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company's management performa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COVID-19 pandemic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ufacturing employ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large and small businesses.

Key Words Large Compan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anufacturing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Employment

Received 19 Jul 2021, Revised 22 Jul 2021

Accepted 26 Jul 2021

Corresponding Author: Jong Wha Lim
(Chungwoon University)

Email: innovate3000@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며 제조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에도 제조업 고용조정 폭이 크지 않으나 고용 충격이 크게 발생한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 폭이 작아 단기적 생산에 대한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 전체 고용이 최근 정체된 중에도 꾸준한 고용 상승이 확인되는 세부 업종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 주력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 의약품, 의료용 기기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지수로 확인한 코로나19의 생산 충격은 제조업에 더 크게 발생 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의 생산지수는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과 광업을 포괄하는 광공업 생산지수는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109.9에서 95.6으로 13%p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0년 1월에서 3월 사이 110에서 101.8로 7.5%p 하락에 그쳤다. GDP로 확인한 코로나19의 생산 충격은 제조업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고(산업연구원, 2021), 제조업은 지난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25조원에서 2020년 2분기 113조원으로 12조원(9.6%p)의 생산 감소 폭을 했다. 서비스업은 2019년 4분기 265조원에서 2020년 2분기 256조원으로 9조원(3.4%p)의 생산 감소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을 보면, 단기적 불황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생산 전망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일회성의 대규모 고용 감축을 보인 후 쉽게 회복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다(뉴스토마토, 2021).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생산 중단과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불안은 제조업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의 경기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제조기업 규모별 경영실적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시기 제조기업의 고용 창출에 변화는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제조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대한 원가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품질, 납기 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전략적 접근방법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등 대표 산업 분야에서 우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우남수, 2010).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함께 경영 성과 제고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대기업은 독자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동인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부각 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적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기 및 경영환경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윤여창 외 2, 2015).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제조업으로 일자리 창출 제조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바이오 헬스, 식료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산업으로 광범위한 산업 연관효과를 가진 산업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중층적인 하도급 거래구조와 산업 연관 효과로 인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호석, 2019).

3. 선행연구

제조기업의 경영현황 및 고용 분석에 대한 기존 주요 선행연구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준기(2019)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체의 재무

성과가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용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장성 재무성과인 매출액 증가율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수익성 재무성과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부(-)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안정성 재무성과는 유동비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재무성과에서는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유의미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고, 생산성 재무성과에서는 1인당 부가가치가 유의미한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심상규(2011)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비율과 수익성간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제품개발과 조립생산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에 따라 고품질의 부품소재를 공급하여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윤운구(2013)는 매출액 변동과 고용성장 정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에서는 대체로 높은 고용증가율을 실현한 사업체 범주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측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며 고용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업체 범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사업체 범주에서 발생한 고용감축이 생산활동이나 매출액 축소와 뚜렷한 관계가 없거나, 또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노용진(2016)은 혁신적 작업조직의 고용효과 연구에서 작업장혁신은 근로자들의 지식과 숙련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인적자원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 절약적 기술혁신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작업장혁신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작업장혁신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고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일반 기술혁신보다 더 낮은 가능성이 높다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혁신이 고용규모의 확대를 보장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작업장혁신도 앞에서 언급한 혁신의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를 통해서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정해준,김용선,정두희(2019)는 고용 창출은 투자와 생산을 유인하고 이는 한 국가의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가 전반적

으로 성장하는 반면 고용은 일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역설적 상황을 겪고 있다. 고용창출이 국가 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학계에서도 어떠한 요인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현상(2015)은 기업 규모를 99인 이하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제조업 취업자의 변동성 연구에서는 여성과 임시일용직, 청년층과 고령층, 관리자 및 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에서 고용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기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고용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재무성과, 창업, 기술혁신, 정부지원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과 고용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에서 수집 제공하는 제조업 경기조사 자료 중 2020년 3~4분기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원자료 중 응답이 누락 된 부분을 제외하고 총 518개(대기업 83개 업체, 중소기업 435개) 업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5.1 전분기(2020년 3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경영실적 분석

본 연구의 전분기(2020년 3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설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매출액은 거의 동일 179개 업체(34.6%), 약간 호전 119개(23%), 약간 악화 106개(20.5%)로 나타났고, 국내 시장 출하는 거의 불변(0%) 225개(43.4%), 감소(-4~-1%) 102개(19.7%), 수출은 거의 불변(0%) 214개(41.3%), 감소(-4~-1%) 42개(8.1%)로 나타났으나 수출 증가(1-4%)도 93개(18%)로 나타났다. 재고 현황은 거의 불변(0%) 338개(62.3%), 증가(1-4%) 86개(16.6%)이며 설비투자는 거의 불변(0%) 402개(77.6%), 증가(1-4%) 43개(8.3%)로 응답이 많았으며 설비 가동율은 거의 불변(0%) 292개(56.4%), 증가(1-4%) 80개(15.4%), 감소

(-4~-1%) 71개(13.7%)이고, 고용현황은 거의 불변(0%) 369개(71.2%), 증가(1-4%) 59개(11.4%), 감소(-4~-1%) 46개(8.9%)이며, 원자재 가격은 거의 불변(0%) 334개(64.5%), 증가(1-4%) 123개(23.7%)로 나타났고 제품가격은 거의 불변(0%) 424개(81.9%) 응답을 보였고 경상이익은 거의 불변(0%) 232개(44.8%), 감소(-4~-1%) 113개(21.8%), 증가(1-4%) 82개(15.8%)이며 자금 사정은 거의 동일 271개(52.3%), 약간 악화 103개(19.9%)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 4분기 경영실적은 전분기 대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매출액, 국내시장 출하, 수출은 감소한다는 응답이 2순위로 많았으며 또한 원자재 가격 증가와 경상이익, 자금 사정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1〉 전분기(2020년 3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경영실적 분석

(N=518)

구분		빈도(개)	백분율(%)
매출액	매우 악화	35	6.8
	상당히 악화	37	7.1
	약간 악화	106	20.5
	거의 동일	179	34.6
	약간 호전	119	23
	상당히 호전	23	4.4
	매우 호전	19	3.7
국내 시장 출하	매우 감소(-10% 미만)	30	5.8
	상당히 감소(-9~-5%)	31	6
	감소(-4~-1%)	102	19.7
	거의 불변(0%)	225	43.4
	증가(1-4%)	95	18.3
수출	상당히 증가(5~9%)	21	4.1
	매우 증가(10% 이상)	14	2.7
	매우 감소(-10% 미만)	34	6.6
	상당히 감소(-9~-5%)	42	8.1
	감소(-4~-1%)	100	19.3
	거의 불변(0%)	214	41.3
	증가(1-4%)	93	18
재고 현황	상당히 증가(5~9%)	23	4.4
	매우 증가(10% 이상)	12	2.3
	매우 감소(-10% 미만)	9	1.7
	상당히 감소(-9~-5%)	12	2.3
	감소(-4~-1%)	51	9.8
	거의 불변(0%)	338	62.3
설비투자	증가(1-4%)	86	16.6
	상당히 증가(5~9%)	12	2.3
	매우 증가(10% 이상)	10	1.9
매우 감소(-10% 미만)	13	2.5	

설비 가동률	상당히 감소(-9~-5%)	15	2.9
	감소(-4~-1%)	32	6.2
	거의 불변(0%)	402	77.6
	증가(1-4%)	43	8.3
	상당히 증가(5~9%)	9	1.7
	매우 증가(10% 이상)	4	0.8
	매우 감소(-10% 미만)	23	4.4
	상당히 감소(-9~-5%)	29	5.6
	감소(-4~-1%)	71	13.7
	거의 불변(0%)	292	56.4
고용현황	증가(1-4%)	80	15.4
	상당히 증가(5~9%)	18	3.5
	매우 증가(10% 이상)	5	1
	매우 감소(-10% 미만)	19	3.7
	상당히 감소(-9~-5%)	17	3.3
	감소(-4~-1%)	46	8.9
	거의 불변(0%)	369	71.2
원자재 가격	증가(1-4%)	59	11.4
	상당히 증가(5~9%)	4	0.8
	매우 증가(10% 이상)	4	0.8
	매우 감소(-10% 미만)	4	0.8
	상당히 감소(-9~-5%)	5	1
	감소(-4~-1%)	14	2.7
	거의 불변(0%)	334	64.5
	증가(1-4%)	123	23.7
	상당히 증가(5~9%)	26	5
	매우 증가(10% 이상)	12	2.3
제품가격	매우 감소(-10% 미만)	11	2.1
	상당히 감소(-9~-5%)	7	1.4
	감소(-4~-1%)	34	6.6
	거의 불변(0%)	424	81.9
	증가(1-4%)	38	7.3
	상당히 증가(5~9%)	2	0.4
	매우 증가(10% 이상)	2	0.4
경상이익	매우 감소(-10% 미만)	33	6.4
	상당히 감소(-9~-5%)	36	6.9
	감소(-4~-1%)	113	21.8
	거의 불변(0%)	232	44.8
	증가(1-4%)	82	15.8
	상당히 증가(5~9%)	15	2.9
자금 사정	매우 증가(10% 이상)	7	1.4
	매우 악화	25	4.8
	상당히 악화	46	8.9
	약간 악화	103	19.9
	거의 동일	271	52.3
	약간 호전	59	11.4
	상당히 호전	13	2.5
매우 호전	1	0.2	

5.2 전년 4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전망 분석

2020년 4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전망에 대한 분석은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매출액은 거의 불변(0%) 236개 업체 (45.6%), 감소(-4~-1%) 109개(21%)이고, 국내 시장 출하는 거의 불변(0%) 247개(47.7%), 감소(-4~-1%) 119개(23%)이며, 수출은 거의 불변(0%) 249개(48.1%), 감소(-4~-1%) 102개(19.7%), 재고 현황은 거의 불변(0%) 368개(71%), 증가(1-4%) 64개(12.4%), 감소(-4~-1%) 61개(11.8%)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 거의 불변(0%) 404개(78%) 가장 많았고 설비가동률은 거의 불변(0%) 307개(59.3%), 감소(-4~-1%) 86개(16.6%), 증가(1-4%) 67개(12.9%)이었고 고용은 거의 불변(0%) 384개(74.1%)로 많았고 원자재 가격은 거의 불변(0%) 368개(71%), 증가(1-4%) 108개(20.8%), 제품가격은 거의 불변(0%) 426개(82.2%), 경상이익은 거의 불변(0%) 246개(47.5%), 감소(-4~-1%) 119개(23%) 순위로 많았으며 자금 사정은 거의 동일 258개(49.8%), 약간 악화 109개(21%)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전망 분석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음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출액 감소, 국내 시장 출하 감소, 수출 감소, 경상이익 감소, 자금 사정 악화가 2순위로 많았다. 한편 원자재 가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표 2〉 전년 4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전망 분석

(N=518)

구분	빈도(개)	백분율(%)	
매출액	매우 감소(-10% 미만)	21	4.1
	상당히 감소(-9~-5%)	40	7.7
	감소(-4~-1%)	109	21
	거의 불변(0%)	236	45.6
	증가(1-4%)	98	18.9
	상당히 증가(5~9%)	11	2.1
국내 시장 출하	매우 증가(10% 이상)	3	0.6
	매우 감소(-10% 미만)	20	3.9
	상당히 감소(-9~-5%)	27	5.2
	감소(-4~-1%)	119	23
	거의 불변(0%)	247	47.7
	증가(1-4%)	82	15.8
수출	상당히 증가(5~9%)	19	3.7
	매우 증가(10% 이상)	4	0.8
	매우 감소(-10% 미만)	22	4.2
	상당히 감소(-9~-5%)	31	6
	감소(-4~-1%)	102	19.7
	거의 불변(0%)	249	48.1
재고 현황	증가(1-4%)	96	18.5
	상당히 증가(5~9%)	14	2.7
	매우 증가(10% 이상)	4	0.8
	매우 감소(-10% 미만)	6	1.2

설비투자	상당히 감소(-9~-5%)	4	0.8
	감소(-4~-1%)	61	11.8
	거의 불변(0%)	368	71
	증가(1-4%)	64	12.4
	상당히 증가(5~9%)	7	1.4
	매우 증가(10% 이상)	8	1.5
	매우 감소(-10% 미만)	9	1.7
	상당히 감소(-9~-5%)	15	2.9
	감소(-4~-1%)	39	7.5
	거의 불변(0%)	404	78
설비 가동률	증가(1-4%)	41	7.9
	상당히 증가(5~9%)	7	1.4
	매우 증가(10% 이상)	3	0.6
	매우 감소(-10% 미만)	19	3.7
	상당히 감소(-9~-5%)	19	3.7
	감소(-4~-1%)	86	16.6
	거의 불변(0%)	307	59.3
	증가(1-4%)	67	12.9
	상당히 증가(5~9%)	19	3.7
	매우 증가(10% 이상)	1	0.2
고용	매우 감소(-10% 미만)	9	1.7
	상당히 감소(-9~-5%)	9	1.7
	감소(-4~-1%)	49	9.5
	거의 불변(0%)	384	74.1
	증가(1-4%)	58	11.2
	상당히 증가(5~9%)	8	1.5
	매우 증가(10% 이상)	1	0.2
	매우 감소(-10% 미만)	4	0.8
	상당히 감소(-9~-5%)	2	0.4
	감소(-4~-1%)	12	2.3
원자재 가격	거의 불변(0%)	368	71
	증가(1-4%)	108	20.8
	상당히 증가(5~9%)	16	3.1
	매우 증가(10% 이상)	8	1.5
	매우 감소(-10% 미만)	8	1.5
	상당히 감소(-9~-5%)	6	1.2
	감소(-4~-1%)	32	6.2
	거의 불변(0%)	426	82.2
	증가(1-4%)	37	7.1
	상당히 증가(5~9%)	6	1.2
제품가격	매우 증가(10% 이상)	3	0.6
	매우 감소(-10% 미만)	26	5
	상당히 감소(-9~-5%)	32	6.2
	감소(-4~-1%)	119	23
	거의 불변(0%)	246	47.5
	증가(1-4%)	81	15.6
경상이익	상당히 증가(5~9%)	12	2.3
	매우 증가(10% 이상)	2	0.4
	매우 악화	24	4.6
	상당히 악화	43	8.3
	약간 악화	109	21
	거의 동일	258	49.8
자금 사정	약간 호전	69	13.3
	상당히 호전	13	2.5
	매우 호전	2	0.4

5.3 전년 대비 2021년 경기 전망

2020년 전년 대비 2021년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1-4%) 169개 업체(32.6%), 거의 불변(0%) 159개 (30.7%)로 나타났고 국내 시장 출하는 거의 불변(0%) 188개(36.3%), 증가(1-4%) 151개 (29.2%)이고, 수출은 거의 불변(0%) 197개(38%), 증가(1-4%) 155개(29.9%), 재고 현황은 거의 불변(0%) 334개(64.5%), 설비투자도 거의 불변(0%) 354개(68.3%)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동률은 거의 불변(0%) 237개 (45.8%), 증가(1-4%) 138개(26.6%), 고용은 거의 불변(0%) 311개 (60%), 증가(1-4%) 100개(19.3%), 원자재 가격은 거의 불변(0%) 298개(57.5%), 증가(1-4%) 157개 (30.3%), 제품 가격은 거의 불변(0%) 380개(73.4%)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이익은 거의 불변(0%) 217개(41.9%), 증가(1-4%) 134개(25.9%), 자금 사정은 거의 동일 214개 (41.3%), 약간 호전 113개(21.8%) 순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경기 전망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다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 3> 전년 대비 2021년 경기 전망 분석 (N=518)

구분	빈도(개)	백분율(%)	
매출액	매우 감소(-10% 미만)	16	3.1
	상당히 감소(-9~-5%)	41	7.9
	감소(-4~-1%)	82	15.8
	거의 불변(0%)	159	30.7
	증가(1-4%)	169	32.6
	상당히 증가(5~9%)	35	6.8
국내 시장 출하	매우 증가(10% 이상)	16	3.1
	매우 감소(-10% 미만)	17	3.3
	상당히 감소(-9~-5%)	31	6
	감소(-4~-1%)	88	17
	거의 불변(0%)	188	36.3
	증가(1-4%)	151	29.2
	상당히 증가(5~9%)	29	5.6
	매우 증가(10% 이상)	14	2.7
수출	매우 감소(-10% 미만)	15	2.9
	상당히 감소(-9~-5%)	29	5.6
	감소(-4~-1%)	81	15.6
	거의 불변(0%)	197	38
	증가(1-4%)	155	29.9
	상당히 증가(5~9%)	28	5.4
매우 증가(10% 이상)	13	2.5	

재고 현황	매우 감소(-10% 미만)	4	0.8
	상당히 감소(-9~-5%)	13	2.5
	감소(-4~-1%)	68	13.1
	거의 불변(0%)	334	64.5
	증가(1-4%)	81	15.6
	상당히 증가(5~9%)	10	1.9
설비투자	매우 증가(10% 이상)	8	1.5
	매우 감소(-10% 미만)	12	2.3
	상당히 감소(-9~-5%)	9	1.7
	감소(-4~-1%)	55	10.6
	거의 불변(0%)	354	68.3
	증가(1-4%)	69	13.3
설비 가동률	상당히 증가(5~9%)	14	2.7
	매우 증가(10% 이상)	5	1
	매우 감소(-10% 미만)	17	3.3
	상당히 감소(-9~-5%)	19	3.7
	감소(-4~-1%)	75	14.5
	거의 불변(0%)	237	45.8
고용	증가(1-4%)	138	26.6
	상당히 증가(5~9%)	26	5
	매우 증가(10% 이상)	6	1.2
	매우 감소(-10% 미만)	10	1.9
	상당히 감소(-9~-5%)	15	2.9
	감소(-4~-1%)	62	12
원자재 가격	거의 불변(0%)	311	60
	증가(1-4%)	100	19.3
	상당히 증가(5~9%)	17	3.3
	매우 증가(10% 이상)	3	0.6
	매우 감소(-10% 미만)	3	0.6
	상당히 감소(-9~-5%)	7	1.4
제품가격	감소(-4~-1%)	21	4.1
	거의 불변(0%)	298	57.5
	증가(1-4%)	157	30.3
	상당히 증가(5~9%)	19	3.7
	매우 증가(10% 이상)	13	2.5
	매우 감소(-10% 미만)	7	1.4
경상이익	상당히 감소(-9~-5%)	10	1.9
	감소(-4~-1%)	45	8.7
	거의 불변(0%)	380	73.4
	증가(1-4%)	65	12.5
	상당히 증가(5~9%)	8	1.5
	매우 증가(10% 이상)	3	0.6
자금 사정	매우 감소(-10% 미만)	17	3.3
	상당히 감소(-9~-5%)	38	7.3
	감소(-4~-1%)	87	16.8
	거의 불변(0%)	217	41.9
	증가(1-4%)	134	25.9
	상당히 증가(5~9%)	21	4.1
자금 사정	매우 증가(10% 이상)	4	0.8
	매우 악화	23	4.4
	상당히 악화	50	9.7
	약간 악화	98	18.9
	거의 동일	214	41.3
	약간 호전	113	21.8
자금 사정	상당히 호전	18	3.5
	매우 호전	2	0.4

5.4 기업 규모별 2021년 경기 전망

기업 규모별 2021년 경기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기업 총 83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증가(1-4%) 36개 업체(43.4%)가 가장 많은 업체가 응답하였고 고용은 거의 불변(0%) 55개(66.3%), 증가(1-4%) 16개(19.3%) 순이며 설비가동률도 거의 불변(0%) 40개(48.2%), 증가(1-4%) 26개(31.3%)로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총 435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거의 불변(0%) 136개 업체(31.3%), 증가(1-4%) 133개(30.6%)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은 거의 불변(0%) 256개(58.9%)로 가장 많았으며 설비가동률은 거의 불변(0%) 197개(45.3%), 증가(1-4%) 112개(25.7%)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021년 경기 전망에 대해 대기업은 매출액 경기 전망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설비가동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은 매출액 부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한편으론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설비가동률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경기 전망을 보이고 있다.

<표 4> 기업규모별 2021년 경기 전망 분석

구분		빈도(개)	백분율(%)	
대기업	매출액	매우 감소(-10% 미만)	1	1.2
		상당히 감소(-9~-5%)	5	6
		감소(-4~-1%)	8	9.6
		거의 불변(0%)	23	27.7
		증가(1-4%)	36	43.4
		상당히 증가(5~9%)	8	9.6
		매우 증가(10% 이상)	2	2.4
	고용	매우 감소(-10% 미만)	-	-
		상당히 감소(-9~-5%)	3	3.6
		감소(-4~-1%)	3	3.6
		거의 불변(0%)	55	66.3
		증가(1-4%)	16	19.3
		상당히 증가(5~9%)	5	6
		매우 증가(10% 이상)	1	1.2
	설비 가동률	매우 감소(-10% 미만)	1	1.2
		상당히 감소(-9~-5%)	4	4.8
		감소(-4~-1%)	5	6
		거의 불변(0%)	40	48.2
증가(1-4%)		26	31.3	
상당히 증가(5~9%)		6	7.2	
매우 증가(10% 이상)		1	1.2	

중소기업	매출액	매우 감소(-10% 미만)	15	3.4
		상당히 감소(-9~-5%)	36	8.3
		감소(-4~-1%)	74	17
		거의 불변(0%)	136	31.3
		증가(1-4%)	133	30.6
		상당히 증가(5~9%)	27	6.2
		매우 증가(10% 이상)	14	3.2
	고용	매우 감소(-10% 미만)	10	2.3
		상당히 감소(-9~-5%)	12	2.8
		감소(-4~-1%)	59	13.6
		거의 불변(0%)	256	58.9
		증가(1-4%)	84	19.3
		상당히 증가(5~9%)	12	2.8
		매우 증가(10% 이상)	2	0.5
	설비 가동률	매우 감소(-10% 미만)	16	3.7
		상당히 감소(-9~-5%)	15	3.4
		감소(-4~-1%)	70	16.1
		거의 불변(0%)	197	45.3
증가(1-4%)		112	25.7	
상당히 증가(5~9%)		20	4.6	
매우 증가(10% 이상)		5	1.1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과 고용 전망에 관한 연구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실적과 관련된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별 경영실적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은 2021년 경기 전망 분석에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고용 창출에서는 66.3%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부분에서 31.3%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와 30.3%는 증가할 것이라는 경영실적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창출에는 58.9%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즉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분석 결과 고용 창출에서는 기업 규모별 대체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윤규(2013)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대체로 높은 고용증가 사업체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체에서도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에서의 고용 감축은 생산활동이나 매출액 축소와 뚜렷한 관계가 없거나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으로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고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2020년 3분기, 4분기 경영실적 및 2021년 경기 전망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대상 기업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 등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고용 창출 특성과 산업 유형별 업종 간 연관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식으로 경영실적, 판매, 설비, 고용, 경상이익, 자금 사정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기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하는 바가 있다.

References

- [1] 산업연구원(2021),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산업경제이슈, 제116호.
- [2] 정경진(2020), “중소 제조기업의 빅데이터활용의도에 관한 연구: 스마트 산업단지 종사자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뉴스토마토(202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58340&inflow=D>.
- [4] 우남수(2010),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경영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조준기(2019), “중소제조업체의 재무성과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 박사학위논문.
- [6] 윤여창, 이성덕, 성재현(2015), “중소기업 경기예측 모형 및 지수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4호, pp.159-175.
- [7] 노용진(2016), “혁신적 작업조직의 고용효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pp.147-162.
- [8] 심상규(2011),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비율과 수익성간의 관계”, 응용통계연구 제28권 제1호, pp.103-114.
- [9] 정해준, 김용신, 정두희(2019), “특허기반 창업의 고용 창출 효과: 자금조달, 제품 판매증가율, R&D투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제14권 제4호, pp.119-154.
- [10] 윤윤규(2013), “기업고용성과의 결정 요인”, 한국노

동리뷰, 제99호, pp.21-34.

- [11] 사호석(2019), “지역별 가맹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2권 3호, pp.304-320.
- [12] 권혜자, 공정승(2016), “인력수급전망-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고용변화와 인력수요전망”, 고용이슈, 제9권 5호.
- [13] 정현상(2015), “제조업 경기변동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4월호, pp.67-78.

최 태 율(Choi, Tae-Wol)



- 2013년 1월~현재 : 산업진흥원 대표
- 2010년 5월~2018년 12월 : ㈜물사랑 대표이사
- 2017년 9월~2020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경영학 석사
- 관심분야 : 경영, 통계, 환경
- E-Mail : c900wol@daum.net

임 중 화 (Lim Jong Wha)



- 2019년 9월~ 현재 : 청운대학교 중 국지역학과 연구교수
- 2014년 8월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2009년 12월 : 영국 브래드퍼드 대학 (University of Bradford) 국제정치학 석사
- 2006년 6월 : 미국 오하이오 에크런 대학교(University of Akron) 경영학 석사 (MBA)
- 2004년 3월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관심분야 : 경영학
- E-Mail : innovate3000@naver.com